

## 뉴질랜드에서의 학교생활

뉴질랜드에 처음 와서 난 너무나 새로운 세계로 온 느낌이었다. 나와 피부색이 다르고, 나와 눈동자 색이 다르고, 나와 머리카락 색이 다른 이 친구들과 선생님.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뉴질랜드 학교 친구들과 선생님 모두가 한국 학교 친구들과 다름 없이 좋은 친구들이라는 느낌이 들었다.

한국에서 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는 수업시간 넓은 잔디 위에서 경험해 보지 못했던 럭비라는 스포츠는 나를 이곳 Kiwi 친구들과 다름 없는 Halswell 학생으로 만들었으며 오케스트라에서의 바이올린 연주, 이색적인 카파하카 라는 마오리 춤, 늘 즐거워 보이는 Halswell School 교장 선생님의 재미있는 캐릭터 넥타이. 지금 나는 잠을 자면서도 영어로 잠꼬대를 하며 이곳 친구들의 음식과 과자도 아주 맛있게 잘 먹는다.

일주일에 한 번씩 7 학년과 8 학년 학생들은 고등학교에 가서 요리, 과학, 재봉기술, 체육 등을 배우며 나무로 필통, 새 집, 액자 등을 만들 수 있다. 학교에서 나에게 너무나 많은 영어를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이 나라 아이들처럼 수업 시간에 지장 없이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다.

이제 나는 한 term 만 있으면 한국으로 돌아가게 된다. 뉴질랜드 Halswell School 친구들과 선생님 그리고 학교 이곳 저곳이 다 정이 들어서 떠나는 마음이 아쉽다. 난 내 기억 속에서 뉴질랜드 2 년 동안의 생활을 잊지 않을 것이다. 그리고 다시 먼 훗날 이곳을 다시 올 것이다.

내 마음속의 추억을 떠올리며.